20돌 템플스테이, 사회공익 · 세계화 '활발'

문화사업단, 20주년 맞아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진행

2002년生 · 부모님 동반 등
치유 · 세대갈등 해소 '기대'
외국 단체 템플스테이 확대
유학생 · 주한대사관 예정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사회공익과 세계화 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20주년을 맞아 알리는 특별템플스테이인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를 시행한다.

개인의 마음치유 및 세대갈등 해소를 위해 열리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찾아간다.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중 첫 번째 기획은 템플스테이와 동갑내기인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다.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갓 성인이 된 2002년생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사업단은 동반 1인(동반인은 나이제한 없음)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라떼 템플스테이'로, 5060부모세대와 MZ세대인 20 · 30대 자녀들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 세대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통해 경험했던 불교문화체험을 자녀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준비했다. '부모-자식'으로 시작해 추억과 새로움을 공유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송광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서 사찰 전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대 학생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와 '라떼 템플스테이'는 모두 1인 3만원에 최대 1박 2일까지 체험이 가능하며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더하기 템플스테이'도 12월까지 계속 진행된다.

이 같은 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등 문화사업단의 사회공익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구례군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햇살나눔 템플스테이'를 5월 14~15일 해인사에서 개최하며,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을 위한 특별템플스테이'를 오는 5월 25~26일 봉선사에서 연다.

5월 21~22일에는 순천 송광사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라떼 템플스테이'가 열리며, 5월 28~29일 김천 직지사에서 '스무살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조했던 외국인 템플스테이도 오랜만에 활발해진 모습이다. 운영 2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세계화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뤄지는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가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5월 3~4일 순천 송광사 템플스테이 및 지역 명소 체험을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순천시와 함께하는 '송광사 템플스테이+지역 명소 탐방'은 지난 4월 배재대 외국인 유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예불, 타종체험, 법고관람, 불일암 포행 등이 있었으며, 템플스테이 이후에 순천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명소를 탐방했다.

외국인 단체 템플스테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월 28~29일에는 동국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곡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오는 5월 19~20일에는 외교부와 연계해 주한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련 연구 결과들도 많다"면서 "이번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아 가족,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같이나눔 템플스테이'를 더해 템플스테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돌을 맞은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사찰,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교 116주년 동국대 'VISION 2040' 선포

5월 4일 개교기념식서 발표
'글로벌 TOP50' 진입 목표

조계종립 동국대가 개교 116주년을 맞아 '동국 미래 VISION 2040'을 선포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국내 톱 3, 글로벌 톱 50 대학 진입을 천명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5월 4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동국 미래 VISION 2040'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기념식 및 선포식은 △발원문 봉독 △비전선포식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동국대는 이날 발표한 '동국 미래 VISION 2040'에서 국내 3위 및 글로벌 50위 대학 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2026년 'Dongguk in the World - 미래가치 창출 및 도약' △2027년~2030년 'The World in Dongguk - 동국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2031년~2040년



'Dongguk beyond the World - 글로벌 미래 사회 선도'가 진행된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건학이념 -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 △교육 - 화쟁형 인재 플랫폼 대학 △연구 - 인류 지속성장 기여 연구 선도대학 △산학협력 - 미래산업 선도대학 △경영 · 인프라 -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의 선창 아래 "지혜 자비 정진의 교훈이 더욱 힘차게 펼쳐져서 동국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길 발원한다"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국 제2의 건학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자 용맹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VISION 2040'을 통해 동국대가 국내 TOP3, 글로벌 TOP50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올해 우리대학의 개교기념일인 5월 8일은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하다"며 "모두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화합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을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올바른 인재로 양성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속 대학으로 발전하자"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8명에게 공로상을, 57명에게는 장기근속상(30년, 20년, 10년)이 수여됐다. 또 한해 동안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내 구성원에게 주는 개교 116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은 이영면 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은 의생명공학과 서영권 교수 등 2명이 수상했다.

한편, 직계 3대 이상 또는 5명 이상의 동문 가족에게 수상하는 동국가족상에는 이철호(법학과 88) 가족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 '불교 4대 명절' 소책자 발간

기존 자료에 가독성 더해, 전법중심도량 등에 배포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 4대 명절' 소책자를 발간했다. 수행정진 캠페인 일환으로 발간된 이번 소책자는 4대 명절의 의미와 수행법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성전과 포교원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고령화된 독자층을 감안해 보다 큰 글씨로 제작했다. 책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해 출가, 성도, 열반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도의식 순서, 수행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소책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전법중심도량 등 사찰 및 단체에 배포됐다.

포교원은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 4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리이타의 공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이 소책자가 작은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며 "포교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행정진 활성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이 성도재일, 출가 · 열반재일 기간 마음거울 108앱을 통한 수행정진 sns 인증 챌린지에는 1500여 명이 넘는 대중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출가열반절 진행한 수행정진 챌린지를 통해 앱 신규 설치자도 증가했다.

노덕현 기자

조폐공사, '반가사유상' 기념 메달 출시

5월 29일까지 예약판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제78호인 '반가사유상'을 기념메달 형태로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을 출시했다. 기념메달은 금 · 은 2종으로 선보인다.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은 6세기 후반 제작된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금메달(순도 99.9%, 중량 20g) 200장, △은메달(99.9%, 10g) 2000장 등 총 2200장 한정 수량 제작된다. 조폐공사는 7월경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원형으로 한 기념메달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기념메달은 앞면에 반가사유상의 전체적인 앞모습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로 재디자인해 표현했고, '국보 반가사유상' 글자와 영문 'Pensive Bodhisattva'를 새겼다. 뒷면에는 '반가사유상'의 얼굴을 확대해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의 깨달음에서 오는 따뜻한 미소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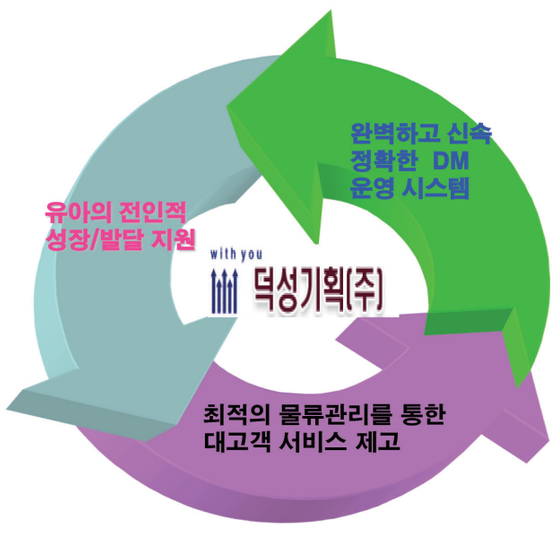
기념메달은 5월 29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된다.

송지희 기자

DM사업, 유아교육사업, 물류사업 총아(寵兒)

덕성기획㈜는 금번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